



'HDC그룹 미래전략 워크숍'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HDC그룹

“건설서 모빌리티그룹 대변신 새로운 길, 새 시각으로 도약”

정몽규 HDC회장, 미래전략 워크숍

“불확실성 속, 자신감 가져야”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길을 찾는 훈련을 하다 보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HDC그룹 정몽규 회장은 지난 6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리조트에서 열린 'HDC그룹 미래전략 워크숍'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새해에는 미국·이란 문제 등 여러 불확실성이 있지만 자신감을 갖고 임한다면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말 미래에셋과 함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성공하면서

기존 건설 중심의 기업에서 '모빌리티 그룹'으로의 변신을 선언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정 회장은 각 계열사 대표이사 등을 향해 아시아나항공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과 모빌리티 그룹으로의 도약을 역설했다.

9일 HDC그룹에 따르면 이번 미래전략 워크숍은 정몽규 HDC 회장, 김대철 HDC현대산업개발 부회장, 유병규 HDC 사장,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사장 등을 비롯해 13개 계열사 대표이사과 최고재무책임자(CFO), 이형기 아시아나항공 미래혁신준비단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HDC그룹은 각사별 사업전략을 심도 있게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6일 열린 첫 번째 세션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한 계열사 대표이사가 사업전략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형기 아시아나항공 미래혁신준비단장이 인수 진행현황에 대한 주요 이슈를 발표하고, 각 대표들이 그룹의 포트폴리오 변화에 따른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며 계열사 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튿날 열린 마지막 세션에서도 HDC그룹의 계열사별 2020년 핵심 현안, 재무건전성 확보, 계열사별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및 생존 전략 등과 관련해 대표이사과 재무책임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은행권 키코배상 고심... “선례될까 두려워”

금감원, 불안전판매 배상책임 인정 기업 손실액의 15~41% 배상 결정

과거 피해기업 147곳 자율조정 추진 배상액 2000억 규모 '후폭풍' 예상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에 가입했다 손해를 본 기업 4곳에 대한 은행의 배상여부가 내달 초 판가름 난다. 현재 배상 권고를 받은 은행 중 한 곳을 제외한 5개 은행은 모두 조정안 수락여부 시기를 늦춘 데 반해 피해기업 4곳 중 3곳은 이미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과 피해기업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추가 피해기업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키코 불안전판매에 따라 손해배상 권고를 받은 은행 6곳 중 하나은행을 제외한 5개(신한·우리·산업·대구·씨티) 은행이 조정안 수락여부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 12월 12일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에 불안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지난달 20일 양측에 보내진 조정결정서는 접수 후 20일 이내 수용, 불수용, 연장 등의 의사를 밝혀야 하는데, 5개 은행이 연장을 신청한 것.

은행권 관계자는 “법률사안을 꼼꼼하게 검토하기 위해 연장하게 됐다”며

(키코 분쟁조정대상 기업 손실액 현황)

업체명	거래은행	손실액
일성하이스코	산한, 산업, 우리, 씨티, 대구, 은행	786
남화통산	신한은행	32
원글로벌미디어	신한은행	200
재영솔루션	신한, KEB하나, 우리, 은행 등	670

/자료=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은행별 배상액 및 수락 여부)

구분	배상액(억원)	수락여부
신한은행	150	연장
우리은행	42	연장
산업은행	28	연장
하나은행	18	수락
대구은행	11	연장
씨티은행	6	연장

/자료=금융감독원

“당장 4개 기업에 배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향후 추가적인 피해기업 배상까지 합하면 배상규모가 상당할 수 있어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금감원은 조정안에 따라 과거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키코 피해기업 147곳에 자율조정(합의권고) 방식으로 분쟁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147개 기업의 피해액은 약 1조원으로, 분조위 배상비율을 적용하면 은행권의 배상총액은 약 2000억원 규모다.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적잖은 후폭풍이 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조정안을 수락한 곳은 하나은행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키코 추가 분쟁 조정을 위한 은행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단순히 배상금 지급 의무 여부를 떠나 피해 기업과 고통 분

담을 통해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하나은행 참여가 다른 은행 참여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장 배상하겠다고 나서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사회를 열고 상황을 보아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쟁조정을 신청했던 피해기업은 이미 4곳 중 3곳이 조정안을 수락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 조봉구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분쟁 조정을 신청한 기업 4곳 중 3곳은 수락했고, 1곳은 이사회를 열어 조만간 수락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키코 공대위는 피해기업에 대상으로 배상금 수령, 은행보유 보증채권 소각, 피해기업과 기업인의 신용회복, 금융지원 요구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요구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결국 해당 은행의 수락여부에 따라 배상여부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분쟁조정이 10년간 기다려온 키코 피해기업에게 희망고문이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조정안 연장신청을 받아들여 결정 일자를 30일 늦춘다. 은행들의 키코 분쟁 조정안 수락여부는 내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올 3000가구 공급... 불황극복 최선”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주택시장이 내수경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규제에도 주택 업계가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올해는 수도권 등 전국에 주택 3000여가구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며 “주택업계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최근 주택업계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주택건설 경기가 위축되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이처럼 어려운 시기 회장의 중책을 맡다 보니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주택건설협회 12대 회장에 선출된 박 회장은 전라남도 영광 출신으로 호남대 대학원에서 토목환경공학 석·박사를 받았다. 2003년부터 영무건설을 이끌었으며 2014~2016년 주건협 중앙회 감사와 2017~2019년 주건협 광주전남도회장을 역임했다.

박 회장은 끝으로 “건설 연관산업을 비롯해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많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9일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은 만큼 주택시장이 냉각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주택건설협회는 이어진 자리에서 주택업계 현황과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박광규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 상무이사에 따르면 ▲하차관리제도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 ▲공공택지 공급방식 개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인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인상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개선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자 요건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율 인하 및 산정방법 개선이 골자다.

/정연우 기자

“보험시장, 소비자중심 전환 신뢰 회복해야”

김병욱 의원, 보험산업 발전 세미나

최근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을 보여온 보험대리점이 불안전판매를 줄이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판매전문회사 도입, 보험대리점협회 자율규제 기관 역할 강화 등이 대응 방안으로 제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통한 보험산업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보험사들이 성장성, 수익성은 악화되는 반면 보험 민원은 금융 관련 민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현재 보험사 중심인 보험시장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험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첫 번째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양적으로 성장해온 보험대리점이 그에 걸맞은 질적 성장을 이루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판매채널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통한 보험산업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희주 기자

다”며 “앞으로도 보험산업 발전과 보험 소비자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힘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보험산업 현황 및 대리점의 기여도’를 주제로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손성동 동서대학교 글로벌경영학부 겸임교수는 “보험대리점의 불안전판매와 수수료 문제에 초점을 둔 비판적 시선에 가려 비전속채널의 장점을 살려 보험사와 윈-윈(win-win)하고,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상생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김희주 기자 hj89@

설경 아름다운 ‘몽·블·엔’ 항공권 특가

(몽골·블라디보스토크·엔지)

에어부산, 16일까지 프로모션

에어부산이 겨울을 맞아 설경이 아름다운 여행지의 항공권을 특가 판매한다. 에어부산은 겨울에 방문하면 더욱 아름다운 도시인 ‘울란바토르·블라디보스토크·엔지’ 노선에 특가 운임을 적용해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

에어부산은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부산-울란바토르 ▲부산-블라

디보스토크 ▲부산-엔지 노선 대상으로 특가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특가 항공권은 1인 편도 총액 기준 ▲부산-울란바토르 15만9900원 ▲부산-블라디보스토크 13만9900원 ▲부산-엔지 11만9900원부터다. 울란바토르, 엔지 노선의 탑승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3월 28일까지며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은 오는 14일부터 2월 11일까지 탑승 가능하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